

2012년 3분기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 및 전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고가영, 신유원

I 배경 ...

약가 인하에 따른 기존 품목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수익성은 감소함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인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감소,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2013년 제약산업은 약가인하의 영향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다소 지체될 수 있지만,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혁신 의지와 더불어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약가 규제가 금년 4월에 본격 시행되었음.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당기 흑자가 예상되어지나 2012년 상반기까지 제약기업의 경영실적 분석결과 수익성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KHIDI 보건산업브리프 Vol.39) 참고
- 2012년 3분기 국내 제약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 등 공시자료를 이용해 경영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제약산업을 전망하고자 함
-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및 산업체 경영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속적인 경영실적(분기, 반기, 연간 등)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 동향자료 제공

II 자료 및 분석방법 ...

- 자료
 - NICE신용평가정보 재무정보 제공시스템(KISVALUE Ⅲ) 기업별 재무정보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별 사업보고서
 - ※각 재무정보는 K-GAAP(개별) 기준
- 분석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중 12월 결산법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社 60개(이후 '상장 제약기업'으로 칭함)를 대상으로 함

※「동물용의약품(C21230)」 및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C21300)」 및 사업기간 중 결산월 변경 등의 이유로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는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

〈참고〉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구 분		기 업 명
대기업 (36개)	유가증권 (24개)	동아제약(주), (주)유한양행, (주)녹십자, (주)종근당, 제일약품(주), JW중외제약(주), (주)LG생명과학, 광동제약(주), (주)한독약품, 보령제약(주), 신풍제약(주), 삼진제약(주), (주)서흥갑셀, (주)태평양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영진약품공업(주), 대원제약(주), 종근당바이오(주), 환인제약(주), 명문제약(주), 한올바이오파마(주), 일성신약(주), 근화제약(주), 슈넬생명과학(주)
	코스닥 (12개)	(주)셀트리온, 동국제약(주), 코오롱생명과학(주), 안국약품(주), 경동제약(주), (주)휴온스, 삼천당제약(주), JW중외신약(주), 대화제약(주), 삼아제약(주), (주)셀트리온제약, 메디포스트(주)
중소기업 (24개)	유가증권 (6개)	삼일제약(주), 동성제약(주), (주)알앤엘바이오, 삼성제약공업(주), 우리들제약(주), 파미셀(주)
	코스닥 (18개)	대한약품공업(주), 화일약품(주), (주)바이오랜드, (주)바이넥스, (주)에스텍파마, 고려제약(주), (주)서울제약, 조아제약(주), 신일제약(주), 대봉엘에스(주), 경남제약(주), 진양제약(주), (주)메디톡스, (주)셀바이오텍, (주)중앙백신연구소, (주)바이오니아, (주)스카이뉴팜,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2012년 3분기 제약기업의 성장성 · 활동성 · 수익성 · 안정성지표 분석
- 시장구분 및 기업규모별 경영성과 분석

〈표 1〉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지표	세부지표	지표	세부지표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등	활동성지표	· 총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 등
수익성지표	· 매출원가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매출액순이익률 등	안정성지표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이자보상비율 등

주: 세부지표의 해설 및 산출식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해설(2007.12)을 이용

Ⅲ 국내 제약기업의 2012년 3분기 경영성과 분석 ...

1. 성장성 분석

■ 매출액증가율

-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6.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하였으나, 2010년 10%대의 높은 매출 성장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3.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매출 시장점유율 (MS)은 54.8%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시장구분별로 코스닥 상장사의 매출액증가율이 9.3%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3.1% 증가함. 반면 매출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6,3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1.4% 감소함
 - 주요 기업별로 (주)메디톡스(255억원, 79.3% 증가), 코오롱생명과학(주)(1,076억원, 26.9% 증가) 등 15개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한 반면, 슈넬생명과학(주)(195억원, △41.0%), (주)알앤엘바이오(293억원, △36.1%) 등 25개 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함

■ 총자산증가율

-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자산총계는 15.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으며, 코스닥 상장사의 총자산이 4.8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9.1% 증가하며 유가증권 상장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 제약기업 구분별 성장성 지표

(단위: 십억원, %)

구분	매출액			자산총계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	6,453 (11.9)	6,679 (3.5)	6,834 (2.3)	12,044 (19.0)	13,823 (14.8)	15,187 (9.9)	
매출 상위 10대 기업	3,566 (12.7)	3,668 (2.9)	3,793 (3.4)	6,609 (26.2)	7,477 (13.1)	8,238 (10.2)	
기업규모	대기업	5,728 (13.0)	5,903 (3.1)	6,034 (2.2)	10,482 (21.0)	11,992 (14.4)	13,143 (9.6)
	중소기업	725 (3.6)	776 (7.0)	800 (3.1)	1,562 (6.8)	1,830 (17.1)	2,044 (11.7)
시장구분	유가증권	5,198 (11.8)	5,236 (0.7)	5,256 (0.4)	8,680 (14.9)	9,832 (13.3)	10,434 (6.1)
	코스닥	1,255 (12.0)	1,443 (15.0)	1,578 (9.3)	3,365 (31.0)	3,991 (18.6)	4,754 (19.1)
매출규모	1,000억원 이상	4,612 (12.6)	4,761 (3.2)	4,899 (2.9)	8,105 (24.4)	9,290 (14.6)	10,229 (10.1)
	500~1,000억원	1,230 (9.0)	1,278 (3.9)	1,305 (2.1)	2,375 (9.5)	2,667 (12.3)	2,768 (3.8)
	500억원 미만	611 (12.4)	640 (4.7)	631 (△1.4)	1,564 (8.7)	1,865 (19.3)	2,190 (17.4)

주: () 괄호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감률



[그림 1]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액 추이

2. 활동성 분석¹⁾

■ 총자산회전율

-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총자산회전율²⁾은 0.47로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음. 제조업의 총자산회전율 1.06(한국은행, 2011년 연간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제약기업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침
 - 시장구분별로는 유가증권,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매출규모별로는 1,000억원 이상 기업의 총자산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약가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증가율이 낮은 반면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약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위주의 제약기업은 매출액이 크지 않아 총자산회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의 과대투자 또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재고자산회전율

-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재고자산회전율³⁾은 4.32로 제조업의 재고자산회전율 10.99(한국은행, 2011년 연간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일반적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 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1) 활동성분석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 또는 투하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표 산출시 저장량(Stock)개념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유량(Flow)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매출액)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함

2)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 Turnover)은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의 운용 효율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3)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ies Turnover)은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표 3〉 제약기업 구분별 활동성지표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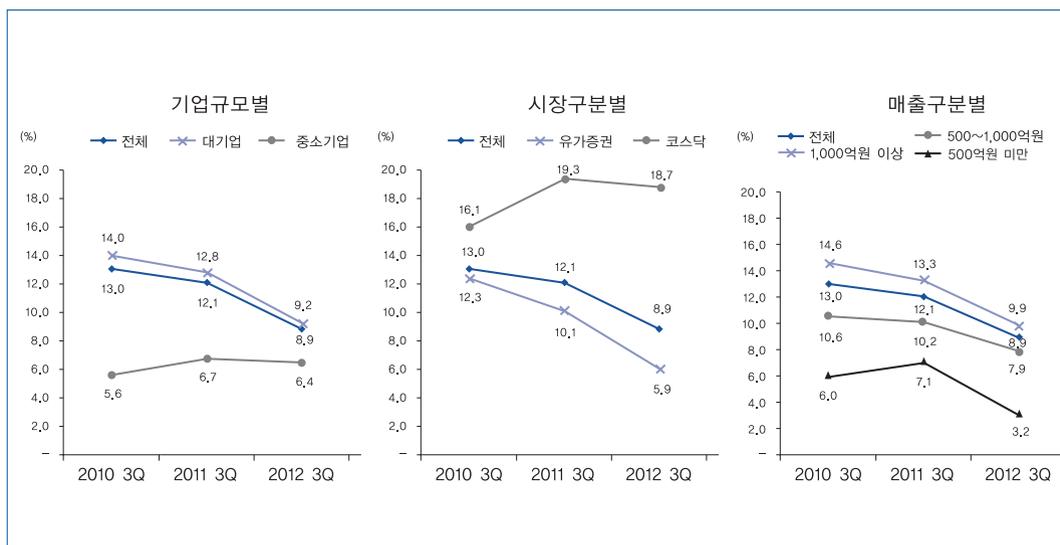
구분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	
상장 제약기업	0.58	0.52	0.47	△0.05	4.79	4.61	4.32	△0.29	
매출 상위 10대 기업	0.60	0.52	0.48	△0.04	4.79	4.70	4.52	△0.18	
기업 규모	대기업	0.60	0.53	0.48	△0.05	4.89	4.72	4.36	△0.36
	중소기업	0.48	0.46	0.41	△0.04	4.13	3.93	4.01	0.08
시장 구분	유가증권	0.64	0.57	0.52	△0.05	4.87	4.68	4.46	△0.23
	코스닥	0.42	0.39	0.36	△0.03	4.50	4.37	3.91	△0.45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0.63	0.55	0.50	△0.05	4.95	4.78	4.51	△0.27
	500~1,000억원	0.54	0.51	0.48	△0.03	4.46	4.38	4.12	△0.26
	500억원 미만	0.41	0.37	0.31	△0.06	4.35	3.99	3.50	△0.49

3. 수익성 분석

■ 매출액영업이익률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은 6,08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7% 감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 동기대비 3.2%p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됨

- 2012년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 55.4%, 메디톡스 54.5%, 쉐바이오텍 30.5% 등의 순으로 주로 바이오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석대상 기업 중 2012년 3분기 영업이익률 적자를 나타낸 기업은 14개에 달함
- 코스닥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의 수준을 유지하며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유가증권 상장사는 4.2%p 감소(10.1%→5.9%), 대기업은 3.6%p 감소(12.8%→9.2%)



[그림 2]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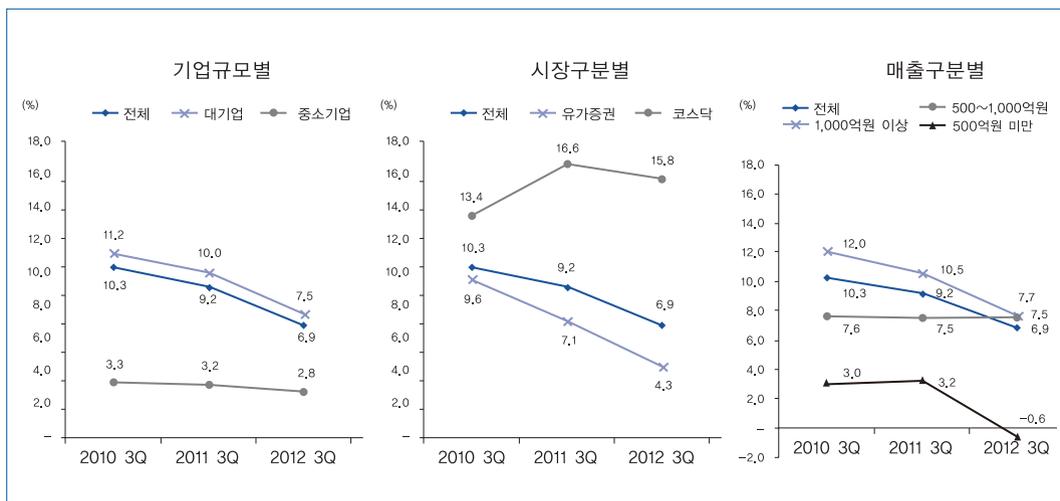
〈표 4〉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단위: 십억원, %, %p)

구분	영업이익				매출액 대 영업이익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상장 제약기업	842	808	608	△24.7	13.0	12.1	8.9	△3.2
매출 상위 10대 기업	544	500	383	△23.4	15.3	13.6	10.1	△3.5
기업 규모								
대기업	801	756	556	△26.4	14.0	12.8	9.2	△3.6
중소기업	41	52	52	△1.4	5.6	6.7	6.4	△0.3
시장 구분								
유가증권	640	529	313	△40.9	12.3	10.1	5.9	△4.2
코스닥	202	279	296	5.9	16.1	19.3	18.7	△0.6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675	633	485	△23.4	14.6	13.3	9.9	△3.4
500~1,000억원	130	130	103	△20.6	10.6	10.2	7.9	△2.3
500억원 미만	37	45	20	△55.7	6.0	7.1	3.2	△3.9

■ 매출액순이익률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73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7% 감소, 매출액순이익률은 6.9%로 전년 동기대비 2.3%p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됨
 - 금년 4월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에 따른 의약품의 가격하락이 제약기업 수익성 악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매출 상위 10위 기업의 순이익률은 8.0%로 전년 동기대비 3.3%p 감소하였고, 특히 매출규모 500억원 미만 기업의 매출순이익률은 적자를 나타냄
 - 기업별로는 (주)메디톡스의 매출액순이익률은 8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주)셀트리온 59.7%, 일성신약(주) 49.6%, (주)중앙백신연구소 3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분석대상 기업 중 동 기간동안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주)LG생명과학 등 12개 기업으로 나타남



[그림 3]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표 5〉 제약기업 구분별 매출액순이익률

(단위: 십억원, %, %p)

구분	당기순이익				매출액 대 당기순이익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상장 제약기업	666	614	473	△24.7	10.3	9.2	6.9	△2.3	
매출 상위 10대 기업	460	414	304	△23.4	12.9	11.3	8.0	△3.3	
기업 규모	대기업	642	589	451	△26.4	11.2	10.0	7.5	△2.5
	중소기업	24	25	22	△1.4	3.3	3.2	2.8	△0.4
시장 구분	유가증권	498	373	224	△40.9	9.6	7.1	4.3	△2.9
	코스닥	168	240	249	5.9	13.4	16.6	15.8	△0.9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554	498	378	△23.4	12.0	10.5	7.7	△2.7
	500~1,000억원	94	96	98	△20.6	7.6	7.5	7.5	0.1
	500억원 미만	18	20	-4	-	3.0	3.2	적자전환	-

■ 판매비와 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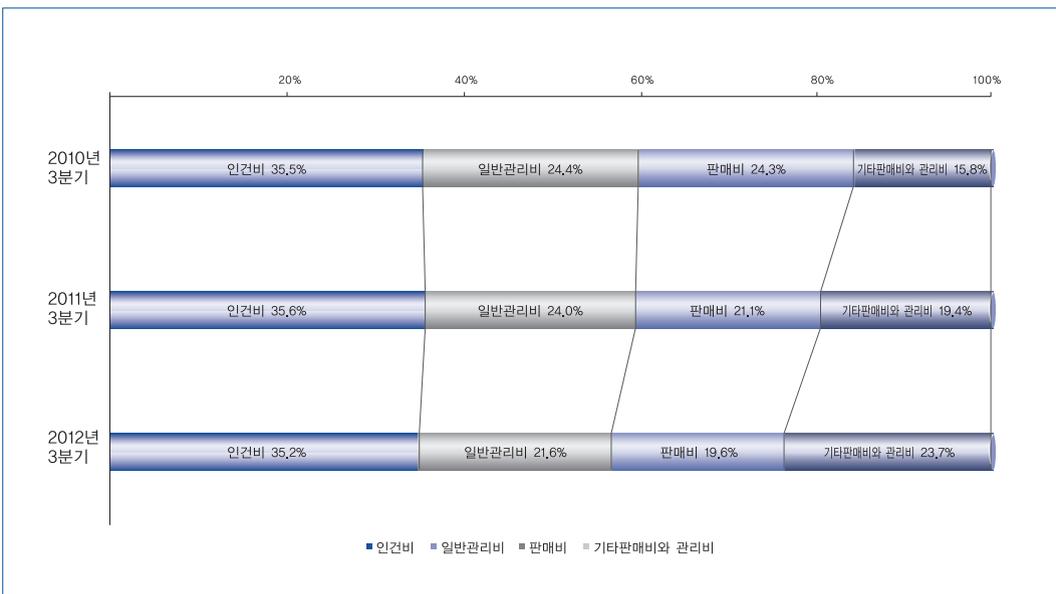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조 3,0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33.8%로 전년 동기대비 0.4%p 감소함
 - 매출액 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2010년 이후로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제약기업 구분별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십억원, %, %p)

구분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대 판매비와 관리비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상장 제약기업	2,233	2,285	2,308	1.0	34.6	34.2	33.8	△0.4	
매출 상위 10대 기업	1,130	1,163	1,186	2.0	31.7	31.7	31.3	△0.4	
기업 규모	대기업	1,933	1,985	2,009	1.2	33.8	33.6	33.3	△0.3
	중소기업	300	299	299	0.0	41.3	38.5	37.4	△1.2
시장 구분	유가증권	1,790	1,805	1,792	△0.7	34.4	34.5	34.1	△0.4
	코스닥	444	480	516	7.6	35.4	33.3	32.7	△0.5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1,485	1,524	1,553	1.9	32.2	32.0	31.7	△0.3
	500~1,000억원	460	472	455	△3.5	37.4	36.9	34.9	△2.0
	500억원 미만	288	289	300	3.7	47.1	45.2	47.5	2.4

-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지출이 감소되었으며, 기타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15.8%→19.4%→23.7%)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함
 - 일반관리비(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등 포함)와 판매비(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포함)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기타판매비와관리비(연구비 등 포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인 일반관리비와 판매비의 감소,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의 증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4]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 비중

■ 연구개발비

-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74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6% 증가,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는 12.8%로 전년 동기대비 3.2%p 증가함
 -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는 2010년 이후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4.1%), 시장구분별로는 코스닥社(29.3%), 매출규모별로는 500억원 미만 기업(24.6%)의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가 각각 높게 나타남
 - 약가인하 등의 요인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 제약기업 구분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단위: 십억원, %, %p)

구분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상장 제약기업	520	640	875	36.6	8.1	9.6	12.8	3.2	
매출 상위 10대 기업	335	442	602	36.3	9.4	12.0	15.9	3.8	
기업 규모	대기업	449	577	762	31.9	7.8	9.8	12.6	2.8
	중소기업	71	63	113	80.2	9.8	8.1	14.1	6.1
시장 구분	유가증권	332	333	413	24.2	6.4	6.4	7.9	1.5
	코스닥	188	308	462	50.1	15.0	21.3	29.3	7.9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370	487	658	35.0	8.0	10.2	13.4	3.2
	500~1,000억원	53	56	61	9.2	4.3	4.4	4.7	0.3
	500억원 미만	96	97	155	60.8	15.8	15.1	24.6	9.5

4. 안정성 분석

■ 부채비율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부채비율⁴⁾은 62.8%로 전년 동기대비 6.6% 상승하였으나 그 비율이 100% 이하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구분별 부채비율은 매출 상위 10위 기업(63.7%), 유가증권 상장社(65.8%), 코스닥 상장社(56.5%), 대기업(61.6%), 중소기업(71.0%) 등 모두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함

※ 제조업 부채비율(2011년 연간 기준): 84.9%(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유동비율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유동비율⁵⁾은 186.6%로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였으며, 3분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구분별 유동비율은 매출 상위 10위 기업(180.7%), 유가증권 상장社(182.8%), 코스닥 상장社(196.4%), 대기업(192.6%), 중소기업(157.0%) 등 그 비율이 높아 재무유동성이 크게 나타남

※ 제조업 유동비율(2011년 연간 기준): 120.4%(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4)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함. 자기자본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짐

5)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총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임

〈표 8〉 제약기업 구분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추이

(단위: %, %p)

구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상장 제약기업	53.4	56.2	62.8	6.6	224.2	190.9	186.6	△4.3	
매출 상위 10대 기업	54.3	54.5	63.7	9.2	223.6	187.4	180.7	△6.7	
기업 규모	대기업	52.2	54.8	61.6	6.7	227.2	191.7	192.6	0.9
	중소기업	61.8	65.7	71.0	5.3	208.0	186.6	157.0	△29.5
시장 구분	유가증권	56.2	59.6	65.8	6.2	218.6	189.3	182.8	△6.5
	코스닥	46.7	48.4	56.5	8.1	242.8	195.8	196.4	0.6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55.6	59.1	67.3	8.2	218.2	182.9	179.6	△3.3
	500~1,000억원	46.2	45.1	47.5	2.4	227.1	207.7	217.3	9.6
	500억원 미만	53.7	58.9	63.4	4.5	254.2	214.5	185.8	△28.7

■ 이자보상비율

◎ 2012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이자보상비율⁶⁾은 536.1%로 전년 동기대비 288.4%p 감소하였으며, 3분기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자보상비율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구분별 이자보상비율은 매출 상위 10위 기업(683.1%), 유가증권 상장사(366.5%), 코스닥 상장사(1,049.7%), 대기업(624.6%), 중소기업(212.0%) 등 매출 상위 10위 기업과 코스닥 상장사만이 제조업 이자보상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매출규모별 500억원 미만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84.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이자보상비율(2011년 연간 기준): 675.4%(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6)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 부담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표 9〉 제약기업의 이자보상비율 추이

(단위: %, %p)

구분	이자보상비율				
	'10년 3분기	'11년 3분기	'12년 3분기	YoY(%p)	
상장 제약기업	976.4	824.5	536.1	△288.4	
매출 상위 10대 기업	1,335.8	1,090.1	683.1	△407.0	
기업 규모	대기업	1,171.4	977.7	624.6	△353.1
	중소기업	228.3	252.6	212.0	△40.6
시장 구분	유가증권	930.9	688.6	366.5	△322.2
	코스닥	1,155.6	1,316.3	1,049.7	△266.6
매출 규모	1,000억원 이상	1,308.6	1,055.3	658.8	△396.5
	500~1,000억원	839.6	662.9	644.2	△18.7
	500억원 미만	192.8	246.3	84.6	△161.7

IV 2013년 제약산업 전망 ...

- ⊙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2012년 4월 약가 인하에 따른 기존 품목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약소하게나마 증가하여 낮은 성장성을 유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크게 감소하였음

 -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일괄 인하로 대부분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3년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짐
- ⊙ 하지만 제약기업의 수익성은 약가인하 정책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며 제네릭 중심의 판매 전략에서 신약개발 및 해외 수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음

 - 이에 맞추어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여 세제 감면 혜택,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음
- ⊙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와 40세 이상 의약품 다소비 인구의 확대, 식생활 및 생활 습관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약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 17.8%('01년) → 25.9%('06년) → 33.3%('11년)
 - 40세 이상 진료비 비중: 56.1%('01년) → 67.3%('06년) → 73.8%('11년)

